

사랑(Sarang) - 언론 브리핑

[2026 년 8 월 31 일 / 주한인도대사관 스와미 비베카난다 문화원]

보도자료

주한인도대사관은 오는 제 12 회 사랑 - 인도문화축제, 제 14 회 인도영화제와 함께, 2026 년 4 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도 국민 방문 당시 합의된 성과의 후속 진행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주한인도대사관 스와미 비베카난다 문화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2. 사랑은 주한인도대사관이 다양한 국내 협력 기관과 함께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다.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인도의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 년 첫 개최 이후 행사 규모와 인지도가 크게 성장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유대도 한층 강화해 왔다.

3. 대사는 사랑 축제의 공동 개최를 위해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온 국내 협력 기관과 후원사에 감사를 표하고, 올해 예정된 주요 행사를 소개했다. 특히 저명한 예술가 마둘리타 모하파트라(Madhulita Mohapatra)가 이끄는 오디시 무용단이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선보이고, 한국의 무용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공연은 9 월 15 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다. 이후 부산(9 월 16 일), 김해(9 월 17 일), 밀양(9 월 18 일), 광주(9 월 19 일), 남이섬(9 월 20~21 일) 등 여러 지역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4. 대사는 또한 제 14 회 인도영화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주한인도대사관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인도 각 지역 언어로 제작된 수상작들을 한국어 자막과 함께 선보이며, 전국의 영화 관객들에게 인도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영화제는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의전당,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디아센터, 인천미림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내 협력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5. 대사관은 "역경을 넘어: 평범한 삶, 위대한 용기"를 주제로 총 6 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상영작은 '퀵', '뉴턴', '마운틴맨', '아내 업고 달리기', '바늘과 실: 메이드 인 인디아',

'사르다르 우담'이다. 이들 작품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비범한 용기를 그린다.

6. 대사는 아울러 2026 년 4 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도 국민 방문을 계기로 도출된 주요 합의 사항의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2026 년 8 월 31 일

서울